2025년 06호

호주 콘텐츠 산업 동향

호주 영화산업과 국제 공동제작 전략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호주 콘텐츠 산업 동향

TRENDS IN THE AUSTRALIAN CONTENTS INDUSTRY

2025년 06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서론	글로벌 영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호주는 왜 주목받는가	OTT 성장 / 공동 제작 / 정책 지원
산업 현황	국제 공동제작 현황과 전망 — OTT 시대의 협업 모델	협업 모델 / 스트리밍 / 한·호 협력
산업 구조	호주 영화산업 구조 — 제작·배급·극장을 중심으로	제작 / 배급 / 극장
정책 환경	공동제작을 위한 호주의 정책·세제 인센티브 구조	세제 혜택 / 인센티브 / 정부 지원
사례 분석	호주 주요 제작·로케이션 사례	제작 사례 / 로케이션 / 성공 모델
실행전략	한국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진출 및 협력 전략	진출 전략 / 파트너십 / 리스크 관리
결론	단계적 확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모델	지속성 / 협력 / KOCCA 연계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호주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5.10.21.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콘텐츠와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영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호주는 왜 주목받는가

글로벌 영상산업은 지난 10년간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OTT(Over-the-Top)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TV+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단순히 새로운 배급 채널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소비, 투자와 수익화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극장이 영화의 유일한 배급 창구였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극장, 구독형 스트리밍(SVOD), 광고 기반 스트리밍(AVOD), 거래형 스트리밍(TVOD), 방송, 케이블이 공존하는 멀티 윈도우 환경이 정착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4년 7월 기준 미국 전체 TV 시청에서 스트리밍의 비중은 41.4%'를 기록하며 전통적 방송 및 케이블을 넘어섰다[1]. 한국 또한 빠르게 뒤따르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중심의 글로벌 오리지널 제작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

호주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보이고 있다. 호주인의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2024년 기준 91%'에 달하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광고형 스트리밍(AVOD) 서비스 이용 가구는 약 30~34%에 이르러, 소비자가 콘텐츠 접근 방식을 다층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4].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는 단순히 시청 채널의 이동을 넘어, 콘텐츠 제작·투자·유통의 국제화와 공동제작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도	유료 스트리밍 (%)	AVOD (%)	온라인 영상 전체 (%)
2017	29	5	62
2019	45	8	74
2021	58	12	83
2023	65	18	88
2025	69	34	91

| 표 1 | 호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 변화 (2017-2025) (출처: ACMA 시청 행태 조사)

호주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공동제작의 최적지로 부상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환급형 세제 인센티브(Producer·Location·PDV Offset 등), 세계적 수준의 스튜디오 및 PDV(Post, Digital & Visual Effects) 인프라, 그리고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에 기반한 공식 공동제작 체계가 이를 뒷받침한다[5][6][7]. 최근 5년간 Screen Incentive를 통한 누적 경제 효과는 약 165억 호주 달

1) Nielsen. (2024). The Gauge: Monthly TV viewing trends in the U.S. (Aug/Sep 2024 issue).
2) KOCCA. (2025). 호주 콘텐츠 산업 동향 2025년 5호.
3) ACMA. (2025). Australian audiences and streaming: 2025 snapshot.
4) Kantar. (2024). Growth of ad-supported tiers fuels increase in service stacking among Australian streamers.
5) Ausfilm. (2025). Australian screen incentives: PDV & location factsheets.
6) Screen Australia. (2024). Producer offset: Guidelines and requirements.
7) Office for the Arts. (2024). Location offset guidelines 2024; Digital Games Tax Offset (DGTO) guidelines. Canberra: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러, 창출된 고용은 2021/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규직 일자리 2만 명 규모(Full-Time Equivalent, FTE)의 고용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8]. 또한 전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58.6억 호주 달러에서 2034년 91.8억 호주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9].

이러한 산업적 전환 속에서 호주는 단순한 '촬영지(location)'를 넘어, 글로벌 제작 네트워크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주의 강점은 세제 인센티브나 인프라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경제적 안정성, 영어권 시장 접근성, 숙련된 제작 인력, 그리고 문화적 개방성이 결합되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제 호주는 글로벌 OTT와 전 세계 제작사들이 '세제 혜택, 기술력 및 제도적 신뢰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복합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 공동제작의 중심축은 단순한 자본 이동을 넘어 호주를 매개로 한 협력적 제작·투자 생태계의 구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주가 왜 지금 국제 공동제작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8) Olsberg•SPI. (2023). Economic impact of screen incentives in Australia (2018-2022).
9) PwC. (2024). Australian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4.

국제 공동제작 현황과 전망 - OTT 시대의 협업 모델

순서

1. 공동제작의 유형과 적용 전략
2. OTT 시대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국제 공동제작(co-production)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OTT의 전 세계적 확산은 자국 내 자본과 인프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제작비와 글로벌 시장 진출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한 국가의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납품하기 위해선 제작비 규모 확대, 해외 로케이션 활용, 다양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기술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는 공동제작이 이미 표준화 단계에 들어섰다.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와 함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streamers)가 2022 년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콘텐츠(자체 제작 또는 공동제작·커미션 제작물)에 약 210 억 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와 방송사 쿼터 제도를 통해 다국적 공동제작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10].
- **북미·중남미지역:**
  - 미국에서는 전통 메이저 스튜디오 외에도 '슬레이트 파이낸싱(slate financing)'과 '사전 판매(pre-sale) 모델'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본 조달을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캐나다는 공동제작 조약 및 세액공제 시스템을 활성화해 국제 제작 협업을 장려하며, 멕시코도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면제 제도를 통해 공동제작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11][12].

한국도 이 추세에 발맞추어 넷플릭스 ·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대형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점차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웹툰·드라마 IP의 글로벌 리메이크가 활발하다. 한국의 강한 IP 소스와 스토리텔링 역량은 OTT 시대에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호주는 이러한 IP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스튜디오·PDV 시설 등)와 제도적 인센티브(세제·공동제작 제도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10)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23). Audiovisual production and co-production in Europe 2012-2022.
11)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2023). Announcement: Rights and contracts in co-production.
12) FilmProposals. (2024). Film financing: Independent production funding models.

이와 맞물려 호주 정부 역시 2023년 1월 발표한 문화정책 「Revive」를 통해 예술·문화·콘텐츠 부문을 향후 5년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 제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Screen Production Fund 확충과 창작 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13].

I. 공동제작의 유형과 적용 전략

1 리메이크형 공동제작(Remake Model)

- 한국의 웹툰·드라마·영화 IP를 기반으로, 호주 및 글로벌 시청자 취향에 맞게 현지화(adaptation)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공한 웹툰이나 드라마를 호주 배우·로케이션·문화 코드로 재해석해 제작하는 구조로, IP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권 관리가 핵심이다.
- 이 모델은 IP 소유주가 콘텐츠 원작의 저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 프로덕션 파트너에게 리메이크권(derivative rights)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14].
- 또한 글로벌 OTT 플랫폼(예: Netflix, Disney+)과의 사전판매(pre-sale) 계약을 통해 제작비를 조기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이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수단으로도 작용한다[15].

2 투자형 공동제작(Equity & Co-Financing Model)

- 이 모델은 제작비와 배급망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양국 또는 다국 간 파트너가 프로젝트 자본 구조를 함께 설계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제작사가 창작 개발과 기획을 주도하고, 호주 또는 제 3 국의 투자자가 자금을 일부 출자하며, 제작 후 글로벌 유통(OTT·극장·방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동 투자형 구조다[16].
- 이때 Producer Offset 등 세제 인센티브와 공동제작 조약을 병행하면 총 제작비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 다만 세무·회계 구조상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자금 회수 경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17].

3 인력·기술형 공동제작 (PDV Collaboration Model)

- 이 유형은 한국에서 기획 및 촬영을 진행하고, 호주에서 후반작업(Post, Digital & Visual Effects, Sound, Grading 등)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 촬영지는 한국이라도, 호주 내 인증된 PDV(Post, Digital & Visual Effects) 업체를 활용하면 PDV Offset(환급률 30%)을 적용받아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18]. 대표적인 사례로,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2021) 과 「Thor: Love and

13) Creative Australia. (2024). Revive: 정책 문서 및 이행 보고.
14) Aaron Hall Law. (2024). Rights carveouts in remake, sequel, and distribution agreements.
15) Film Daily. (2024). Film funding strategies: Pre-sales and platform deals.
16) Screen Australia. (2024). Co-production program.
17) ATO. (2024). Transfer pricing: International tax for business.
18) Department of the Arts. (2025).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 offset guidelines (April 2025).

Thunder」(2022) 는 시드니의 Fox Studios Australia 와 현지 VFX 전문기업(DNEG, Industrial Light & Magic 등) 을 활용하여 주요 촬영 및 후반작업(Post-production)을 진행하였다.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은 호주의 PDV 및 Location 인센티브 제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글로벌 스튜디오들이 호주를 주요 제작 거점으로 활용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 이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 전송 및 원격 협업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접근 권한 통제, E&O(Errors and Omissions) 보험 체계가 필수다[19].

4 로케이션형 공동제작 (Location-Based Co-Production)

- 호주의 광활한 자연환경, 도시 인프라, 안정적 로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의 Village Roadshow Studios, 시드니의 Fox Studios, 빅토리아주의 Docklands Studios 등은 헐리우드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젝트가 자주 사용하는 촬영지다[20].
- 이 모델에서는 Location Offset(30%)과 주정부의 추가 인센티브(최대 10~20%)를 결합하면, 총 제작비의 40~50%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다만, 해외 제작 인력이 참여할 경우 비자 취득, 산업안전 규정, Fair Work Act(호주 노동법) 준수가 필수다[21].

5 하이브리드형 공동제작 (Hybrid or Multi-Party Model)

- 최근 가장 보편화된 형태로, 위 네 가지 모델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다자간 프로젝트 구조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작 IP 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기획·촬영하고, 호주에서 후반(PDV)을 수행하며, 글로벌 OTT 플랫폼이 초기 단계에서 투자와 배급권 계약을 병행하는 식이다.
- 이 경우, 공동제작으로 인정받을 경우 양국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며, 호주의 경우 연방 정부의 세제 혜택과 주정부의 인센티브도 결합하여 실효적이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투자형 요소(지분 참여)까지 포함된다[22].
- 계약 단계에서는 배급권 분할 구조(territorial split of rights), 저작권 귀속 및 2 차적 이용권 조항, 세제 이중신청 방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19) Romano Law. (2024). E&O insurance in entertainment: What it covers and why you need it.
20) Screen Australia. (2024). Incentives brochure (English).
21) KOCCA. (2025). 호주 콘텐츠 산업 동향 2025년 4호: 호주 진출 관련 법률 및 규제
22) Ausfilm. (2024). Co-production information page.

유형	주요 리스크	핵심 관리 포인트	전략적 활용 방향
리메이크형 공동제작 (Remake Model)	• 원작 저작권 귀속 불명확 • 리메이크권 남용 가능성 • 글로벌 OTT 계약 시 권리 충돌	• 저작권 관리 문서화 • 2 차적 이용권 및 승인 절차 명확화 • Pre-sale 계약 시 권리 범위(territory) 사전 확정	• 한국 원작 IP 를 글로벌 OTT 대상 현지화 • 라이선스형 구조로 IP 가치 극대화
투자형 공동제작 (Equity & Co-Financing Model)	• 지분·수익 배분 불균형 • 이전가격·원천징수세 리스크 • 자금 회수 경로 불명확	• 투자계약서에 Exit 구조 명시 • 한-호 조세조약 적용 검토 • 회계 기준 사전 조정	• 세제 인센티브와 병행해 자본 효율성 극대화 • 재무·법률·세무 자문 통합 설계 필수
인력·기술형 공동제작 (PDV Collaboration Model)	• 데이터 전송·보안 문제 • 저작물 수정권 분쟁 • 보험 부재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 PDV Offset(30%) 요건 충족 확인 • 데이터 보안·접근 통제 프로토콜 구축 • E&O 보험 및 NDA 체계화	• 후반작업 전문성으로 제작비 절감 • 한-호 기술 협업 및 인력 교류 촉진
로케이션형 공동제작 (Location-Based Model)	• 비자 지연·산업안전 위반 위험 • 인센티브 신청 지연 • 현지 노동법 불이행	• 연방정부 Location Offset(30%) 및 주정부 보조금 병행 • Fair Work Act 및 안전 규정 준수 • 비자·취업허가 사전 확보	• 주정부 인센티브로 최대 50% 환급 가능 • 로케이션 네트워크 기반 안정적 촬영
하이브리드형 공동제작 (Hybrid/Multi-Party Model)	• 권리구조 복잡성 • 세제 중복 신청 위험 • 수익 분배 분쟁	• 공동제작 계약 시 2 차적 이용권 등 명시 • 세제 신청 주체 일원화 • 분쟁해결조항 포함	• IP·투자·PDV·로케이션 결합 구조로 대규모 프로젝트 적합 • 다국 간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극대화 가능

| 표 2 | 공동제작 유형별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

II. OTT시대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

1 OTT 시대의 제작 패러다임 변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협업 필수

- **OTT 플랫폼 중심의 제작 생태계에서는 콘텐츠가 한 국가의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 **글로벌 시청자 취향, 언어, 규제, 세제 인센티브가 모두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콘텐츠 기획은 '국내 완성 후 해외 판매'가 아니라 기획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투자·배급 전략을 병행하는 구조로 진화했다.**
  - 예컨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주요 OTT 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기획 초기부터 IP 확보, 제작비 조달,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제작(co-production)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23].
  - 이에 따라 한국 제작사들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해외 파트너의 역할 분담

23) Time Magazine. (2023). Netflix invests in South Korea's content and K-dramas.

·· 투자 구조 및 세제 인센티브 적용 범위
·· 지역별 배급권 및 수익 배분 구조

2 글로벌 판권 구조 설계: 초기 계약 단계의 핵심 조율 포인트

- **OTT 중심의 배급을 고려할 경우, 기획 및 계약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권리 구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24].**
  - 최종 편집권 (Final Cut Control)
    ·· 최종 편집본의 승인권을 누가 가지는지 명시해야 하며, 플랫폼과 제작사 간 창작 관련 주요 결정(creative approval) 절차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화(Localization) 권리
    ·· 자막, 더빙, 버전 수정, 로컬 마케팅에 필요한 권한과 비용 분담 구조를 계약서에 명시.
    ·· 언어·문화적 수정 범위에 대한 사전 승인 조건(pre-approval) 설정 필요.
  - 지역별 배급권(Territory Rights) 구분
    ·· OTT / 극장 / 방송 등 미디어별 권리 구획, 지역별 상영 범위 및 기간, 홀드백(holdback)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이러한 권리 구조는 사전판매(pre-sale) 계약, 라이선스 수익 배분, 세제 인센티브 적용 주체 결정에도 직접 연결된다.

3 재무·세무 최적화: 호주 세제 인센티브와 한국 과세 이슈 병행 고려

- **호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환급형 세제 인센티브(Offsets) 체계를 운영한다.**
- **한국 기업이 공동제작 구조를 설계할 때는, Offset 선택과 조세조약 적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보다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내용은 2025년 8월 28일 발간된 〈호주 콘텐츠 산업정책 및 정부 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 인센티브	지원율	적용대상	최소요건
Producer Offset	40%/30%	호주 제작물	문화테스트
Location Offset	30%	해외 대작 촬영	2 천만 AUD
PDV Offset	30%	후반작업	50 만 AUD

| 표 3 | 호주의 환급형 세제 인센티브(Offsets) 체계

4 현장 제작 규제 대응: 아동·드론·스턴트·동물 활용 시 주요 법규

- **아동 배우 고용 (Children in Acting & Modelling)[25]**

24) Screen Australia. (2024). Co-producers agreement guidelines.
25)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NSW). (2024). Employing children in acting and modelling.

- NSW 에서는 아동(만 16 세 미만)을 고용할 경우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촬영 7 일 전 고용 통지, 근무 시간 제한, 교육·휴식 보장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
- 위반 시 고용권 취소 또는 형사 처벌 리스크 있음.

드론 촬영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26]

- CASA(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Part 101 규정 적용되므로 비행 고도, 시야 범위, 허가·통지 의무 등 준수하여야 함.
- 공원·유적지 등은 지방정부 또는 토지소유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스턴트 및 고위험 장면[27]

- Work Health and Safety(WHS) 법령에 따른 위험평가 및 안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전문 스턴트 코디네이터 참여, 응급대응 체계를 확보할 의무 있음.

동물 촬영[28]

- NSW 의 Animal Welfare Code for Film and Theatrical Performances 등 준수할 의무 있음.
- 사전 허가, 수의사 감독, 동물 복지 책임자 등 지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6)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2024). Know your drone: Drone rules.
27) Safe Work Australia. (2024). Codes of practice.
28)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2024). Animal welfare regulation: Animals in film and theatrical performances.

호주 영화산업 구조 – 제작·배급·극장을 중심으로

순서

1. 제작 산업 (Production)
2. 배급 산업 (Distribution)
3. 극장 산업 (Cinemas)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호주의 영화산업은 크게 제작(Production)·배급(Distribution)·극장(Cinemas)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긴밀히 맞물려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IBISWorld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 산업의 합산 규모는 약 70억 호주달러로 추정되며[29)30)31)], OTT 서비스 확산으로 제작 부문이 확대되는 한편, 전통 배급 및 극장 부문은 새로운 경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I. 제작 산업 (Production)

호주의 제작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작사·OTT 플랫폼·공공 기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생태계를 형성한다.

| 그림 1 | 호주 제작 산업 수치 (출처: IBISWorld J5511)

- 시장 규모: 약 42 억 AUD (2023 년 기준)
- 주요 기업 및 역할: See-Saw Films, Fremantle Australia, Village Roadshow(제작·배급 겸영) 등 민간 제작사와 함께, 공공 지원기관인 Screen Australia 가 정책·인증·펀딩 허브 역할을 담당.
- 트렌드: 글로벌 OTT 주문형 제작 증가, 고품질 드라마·장편 영화 투자 확대.
- 정부 지원: Producer/Location/PDV Offset 등 활용 가능

제작 부문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OTT 중심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적 제작 역량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해외 제작사들은 호주의 세제 혜택과 안정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로케이션 제작

29) IBISWorld. (2024).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in Australia (J5511).
30) IBISWorld. (2024). Motion picture and video distribution in Australia (J5512).
31) IBISWorld. (2025). Cinemas in Australia (J5513).

또는 후반 작업 허브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II. 배급 산업 (Distribution)

배급 산업은 OTT의 급성장에 따라 기존 극장 중심의 단일 경로에서 벗어나 복수 플랫폼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스트리밍, 극장 개봉, 방송 라이선스 등 다양한 경로가 공존하면서, 배급의 중심축은 "콘텐츠별 플랫폼 최적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 그림 2 | 호주 배급 산업 수치 (출처: IBISWorld J5512)

- 시장 규모: 약 12 억 AUD (2023 년 기준)
- 수익 비중: 디지털 스트리밍(SVOD/AVOD 포함) 42%, 극장 30%, 방송 22%, 소매 (DVD/Blu-ray) ~6%
- 주요 기업: Walt Disney Australia, Warner Bros, Universal Pictures, Roadshow Films 등
- 기술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배급 단계에서도 DCP·IMF 등 국제 포맷 표준화와 보안 인증이 강화되고, 초고해상도 4K/고명암 대비 HDR 마스터링 등 첨단 영상 기술이 결합된 고품질·고보안 유통 체계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

배급 산업은 OTT 중심의 시장 전환으로 인해, 단순한 콘텐츠 유통 단계를 넘어 법적·계약적 구조 설계, 기술 표준 관리, 지역별 유통 전략 수립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별 소비 패턴이 세분화될수록, 배급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III. 극장 산업 (Cinemas)

호주의 극장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후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관객 경험 개선, 수익 다각화 전략을 통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 | 호주 극장 산업 수치 (출처: IBISWorld J5513)

극장 산업은 OTT 플랫폼과의 단순 경쟁 대신,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허브'로의 전환이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시장 규모: 약 14 억 AUD (2025 년 기준)
- 주요 기업 수: 호주 극장 산업은 소수 대형 체인에 집중된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Event, Hoyts, Village, Reading 의 4 대 체인이 전체 스크린의 약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지역 집중도: NSW 49%, VIC 26% 등 동부 해안 집중
- 트렌드 및 서비스 다각화: 팬데믹 이후 관객 유입 회복을 위해 극장 산업은 프리미엄 상영관(Gold Class, VMAX, IMAX, 4DX), Dolby Atmos 와 같은 첨단 음향, 대형 LED 스크린 등이 표준화되며, 티켓 수익 외에도 식음료(F&B), 멤버십 프로그램, 기업 이벤트 대관, 광고 수익 등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음.

| 그림 4 | 호주 Event Cinemas Gold Class, Village Roadshow IMAX 내부 사진
(출처: Event Cinemas, Village Roadshow 공식 홈페이지)

호주의 극장 산업은 2025 년 기준 박스오피스가 전년 대비 약 8% 성장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극장은 단순한 상영 공간에서 벗어나 몰입형 경험 공간(immersive experience space)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프리미엄화·기술 혁신·서비스 다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OTT 와의 경쟁보다는 현장 경험, 사운드, 대형 스크린, 커뮤니티 등 오프라인 강점을 활용한 공존 전략이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제작을 위한 호주의 정책·세제 인센티브 구조

순서

1. 연방 차원의 세 가지 핵심 인센티브
2. 주정부 보조금과 결합형 인센티브 전략
3.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공동제작할 때 참고할 주요 사항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환급형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이 제도는 국제 공동제작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에게는 그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연방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reen Australia를 중심으로 Producer, Location, PDV Offset 등 다양한 환급형 세제 혜택을 운영하며,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와 결합될 경우 총 제작비의 최대 40~50%까지 절감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8월 28일 발간된 「호주 콘텐츠 산업 정책 및 정부지원」 보고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호주 세제 인센티브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 연방 차원의 세 가지 핵심 인센티브

1 Producer Offset – "호주 작품으로 인정받는 순간, 최대 40% 리베이트"

- Producer Offset은 호주 내에서 제작되거나, 공식 공동제작(co-production)으로 인증된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다.
- 프로젝트가 Screen Australia의 Significant Australian Content(SAC)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한-호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호주 작품'으로 인정받으면, 한국 기업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편 영화는 QAPE(Qualifying Australian Production Expenditure)의 40%, TV·다큐멘터리 등은 20%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QAPE는 호주 내에서 발생한 자격 있는 제작 지출을 의미하며, 인건비·로케이션·장비·후반작업비 등이 포함된다.

2 Location Offset –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유치하는 30%+α의 힘"

- Location Offset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 촬영 프로젝트를 호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 QAPE의 30% 환급률이 적용되며, 2023년 7월 개정 이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었다.
- 이 제도는 Marvel, Netflix, Warner Bros 등의 글로벌 제작사들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등에서 촬영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특히 연방 정부의 Location Offset(30 %) 제도와 주정부의 보조금(State Rebate) 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Thor: Love and Thunder」는 호주 연방 정부의 Location Offset 을 통한 보조금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Made in NSW'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작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이러한 복합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별로 실질 환급률이 40% 이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으며, 구체적 비율은 각 작품의 지출 항목, 주정부의 심사 기준, 연방·주 간 중복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PDV Offset – "촬영지는 해외라도, 후반작업은 호주에서"

- PDV(Post, Digital & Visual Effects) Offset 은 후반작업·디지털·VFX 단계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 프로젝트가 호주에서 촬영되지 않아도, 호주 내 스튜디오(예를 들어, Animal Logic, Fin Design + Effects 등)에서 PDV 작업을 수행하면 QAPE 의 30% 환급이 가능하다.
- 절차가 간단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 규모의 한국 제작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VFX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II. 주정부 보조금과 결합형 인센티브 전략

연방 인센티브 위에 주정부의 추가 지원을 결합하면 실질 환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주(State)별 인센티브는 제작 인프라, 인력 풀, 로케이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특히 PDV(후반작업)와 Location(촬영) 중심 지원이 뚜렷하다.

1 NSW (뉴사우스웨일즈)[32] — Fox Studios가 상징하는 글로벌 허브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PDV 비용의 10%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세계적 규모의 Fox Studios 를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풍부한 제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후반작업 클러스터에는 Animal Logic, Fin Design + Effects, Stage23 등 국제 프로젝트를 다루는 VFX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 특히 The Matrix Resurrections, Peter Rabbit 2 등 글로벌 영화들이 NSW 인센티브를 결합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2 QLD (퀸즐랜드)[33] —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기 거점

- 퀸즐랜드주는 PDV·Location 비용의 최대 15%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Village Roadshow Studios(골드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촬영 인프라를 자랑한다.
- 열대 기후, 넓은 세트 공간, 오픈 로케이션 덕분에 「Aquaman」, 「Thor: Ragnarok」, 「Godzilla vs

32) Screen NSW. (2024).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rebate.
33) Screen Queensland. (2024). Post, digital, and VFX incentives.

Kong」 등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장기 촬영지를 이곳으로 선택했다.

- Location Offset(30%)과 QLD 주정부 보조금(최대 15%)을 결합하면 제작비의 최대 45% 환급 구조가 가능하며, 이는 미국·영국보다 높은 실질 세제 혜택 수준이다.

3 SA (남호주)[34] — 기술 기반 후반작업의 중심지

- 남호주는 PDV 비용의 10% 환급을 지원하며, Adelaide Studios 와 Rising Sun Pictures, KOJO 등 전문 후반작업 스튜디오가 밀집해 있다.
- 호주 내에서도 기술 기반 인력풀이 가장 안정적이며, 할리우드의 「Mortal Kombat」은 이 지역의 리베이트 혜택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 또한 남호주 영화청(ScreenSA)은 제작 지원 외에도 국제 공동제작 컨설팅, 현지 인력 매칭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중소 규모 해외 제작사에게 진입 문턱이 낮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4 VIC (빅토리아)[35] — 도시형 촬영과 후반작업의 강자

- 빅토리아주는 PDV 10%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도심형 세트와 Docklands Studios Melbourne 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트촬영·CG·VFX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The Leftovers (HBO)」, 「La Brea (NBC)」 등 해외 드라마와 OTT 시리즈의 제작 거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높아 도심형 로케이션 촬영에 유리하다.

5 WA (서호주)[36] — 광활한 자연 로케이션의 보고

- 서호주는 PDV 10% 리베이트를 운영하며, Broome, Kimberley, Perth 등 독특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형 야외 촬영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다.
- 특히 「Breath (2017)」, 「Blueback」 (2023) 등의 작품이 WA 주정부의 로케이션 리베이트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지역 인프라 개선 이후 다큐멘터리·자연 서사물 중심의 제작사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의 주정부 보조금은 단순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연방 Offset 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결합 구조다. 이 결합형 인센티브를 통해 각 주는 고유한 강점을 살리며 글로벌 제작사를 유치하는 "호주형 분권적 영화산업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

III.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공동제작할 때 참고할 주요 사항

1 공동제작 자격 및 승인 절차[37]

- 공동제작(official co-production)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호주 간 공동제작 조약 또는

34) South Australian Film Corporation. (2024). Incentives programs.
35) VicScreen. (2025). Funding incentives overview.
36) Screenwest. (2025). Western Australian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incentive guidelines.
37) Screen Australia. (2024). Co-production program guidelines.

양해각서(MOU)에 따라 Screen Australia 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족해야 한다.

- 공동제작 승인은 두 국가의 감독 기관이 사전 승인(provisional approval) 과 최종 승인(final approval) 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창작 기여도, 재정 분담 비율, 참여 인력 자격 등이 평가된다.

2 QAPE (Qualifying Australian Production Expenditure) 요건[38)]

- 연방 Offset 혜택을 받으려면, QAP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APE 는 호주 내에서 발생한 유자격 지출 비용만 인정되며, 인건비, 장비 대여, 장소 사용, 후반작업 등이 포함된다.
- 다만, “above-the-line” 비용(주연 배우·감독 등 핵심 인력 보수)은 QAPE 로 인정 가능한 비율이 제한된다.

3 오프셋 제도 구조 및 결합 가능성[39)]

- 호주의 세 가지 연방 세제 인센티브(Producer, Location, PDV Offset)는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운영된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는 세 제도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Producer Offset 을 선택한 경우 Location Offset 이나 PDV Offset 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연방 Offset 은 주정부 인센티브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 결합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의 실질 환급률을 40% 이상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운용이 가능하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State)마다 인센티브 요건과 지원 조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규모·장르·촬영지에 따라 주정부 기관(Screen NSW, Screen Queensland, Film Victoria 등)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인증·증명 문서 및 보고 요건

- 연방 Offset 을 청구하려면 최종 증명서(final certificate) 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Producer 또는 Location/PDV Offset 신청 시, 각 관련 기관에서 프로젝트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 프로젝트 중·후반에 지출한 비용 증명, 회계감사 보고, 지역 인력 고용 현황 보고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 체계 및 문서 관리가 중요하다.

5 관련 법률·계약 구조 등 사전 검토 필수

- 공동제작 계약 시 지적재산권(IP) 소유권, 배급 권리, 수익 분배 구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 특히 공동제작 조약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 법률 준수, 국가별 방송 쿼터 반영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38) Ausfilm. (2024). Australian screen production incentives (October 2024).
39) ATO. (2024). Film industry incentives 2024.

호주 주요 제작·로케이션 사례

호주는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과 첨단 제작 인프라,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상 제작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Producer Offset, Location Offset, PDV Offset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은 해외 대형 스튜디오의 투자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호주 영상산업의 성장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 그림 5 | 호주 Village Roadshow Studios, Disney Studios Australia (출처: 각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블 스튜디오(Marvel Studios),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디즈니(Disney) 등 세계적인 제작사들이 호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제작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블의 「Thor: Love and Thunder」는 시드니의 Disney Studios Australia와 Village Roadshow Studios에서 제작되어, 현지 인력 수백 명이 참여하고 대규모 후반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2021, Marvel), 「Aquaman」 시리즈(Warner Bros.),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en Tell No Tales」(Disney)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호주 각지에서 촬영되어 지역 경제에 수억 달러 규모의 고용·소비 효과를 창출했다[40][41][42]. 특히 이러한 제작 활동은 단순한 로케이션 유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전문 인력 양성, 후반작업(Post-production) 산업 발전, 기술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진출로 이어지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국제 공동제작(Co-production) 및 VFX·애니메이션 후반작업 허브로서도 각광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콘텐츠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2025년 8월 28일 발간된 〈호주 콘텐츠 산업정책 및 정부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IF.com.au. (2019). Thor: Love and Thunder to shoot in Sydney.
41) Ausfilm. (2020). Made in Australia: Thor Love and Thunder.
42) Screen Global Production. (2017). Pirates of the Caribbean ships filmed in Australian studio.

한국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진출 및 협력 전략

순서

1. Digital Originals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숏폼 진출
2. ACTF 협업 기반 키즈·패밀리 장르 공동 제작
3. 공영 네트워크 연계 다큐멘터리 등 사실 기반 콘텐츠 협력 모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국제 공동제작의 제도적 기반, 안정적 인프라, 그리고 다층적 정부 지원 체계를 모두 갖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제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한국 콘텐츠 기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음 세 가지 분야는 한국 제작사와 IP 보유 기업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초기 진입 장벽이 낮고, 공공 지원이 활발한 영역이다.

I. Digital Originals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숏폼 진출

- 호주의 Screen Australia/SBS/NITV 공동 프로그램 'Digital Originals'는 신진 제작자와 문화 다양성 스토리텔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시리즈 개발·제작 지원 제도이다. 매년 약 10 개 팀이 워크숍에 선정되고, 이후 최대 3 개 프로젝트가 제작 단계로 진출하여 SBS On Demand/NITV 를 통해 공개된다[43].
- 이 프로그램은 6×10 분 규모의 숏폼 시리즈를 중심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글로벌 시청자 반응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 한국 제작사는 웹툰·웹소설 IP 를 기반으로 한 호주 현지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호주 작가 프로듀서와 공동 개발(dual writers' room) 체계를 구축해 초기 Proof of Concept(POC)을 확보할 수 있다. 성공 시 시즌 확장, OTT 공동투자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II. ACTF 협업 기반 키즈·패밀리 장르 공동 제작

- Australian Children's Television Foundation(ACTF)는 호주의 아동·가족 콘텐츠를 전문 지원하는 정부 재단으로, 개발/제작/국제유통/교육 연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구조를 운영한다[44].
- ACTF 개발 펀딩은 프로젝트당 최대 35,000 호주달러를 지원하며, 스토리 개발과 파일럿 제작, 국제 시장 진출 컨설팅이 포함된다.
- 한국 기업은 교육적 가치·가족 중심 IP 를 현지 커리큘럼과 문화 코드에 맞춰 공동 기획하고, ACTF

43) Screen Australia. (2024). Digital originals: Special initiatives.
44) ACTF. (2025). Project development funding guidelines (Oct 2023).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내 방송·BVOD(ABC Kids, SBS On Demand 등) 진출과 한국 역수출을 병행할 수 있다.

- 아동 콘텐츠는 정부 정책상 지속적 공공 지원 축으로 분류되어, 가장 안정적인 장르 투자군으로 평가된다.

III. 공영 네트워크 연계 다큐멘터리 등 사실 기반 콘텐츠 협력 모델

- 호주의 다큐멘터리 산업은 공영방송(ABC, SBS)과 Screen Australia 다큐멘터리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 프로그램별 최소 편성료(License fee), 심사 기준, 공동제작 자격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예측 가능한 제작 환경이 강점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형 콘텐츠(드라마·시리즈 등) 프로그램의 제작 포맷과 재원 구조를 명확히 조정하여, 해외 파트너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했다[45](52).
- 한국이 보유한 탐사·취재 중심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호주의 ABC·SBS 등 공영 네트워크의 커미션 체계와 연계하면, 공동기획/사전판매(pre-sale) 확보/세제 환급(Producer Offset)의 3 단계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국제 공동제작 모델을 구현 가능하다.

호주의 공동제작 지원체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공공 펀드, 방송 네트워크, 세금 환급, 주정부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다. 한국 콘텐츠 기업은 위 전략을 통해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파일럿 단계에서 시작하여 시즌제, 장편, 국제 유통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는 한-호 간 공동제작을 "제도적 가능성"에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45) Screen Australia. (2024). Documentary production guidelines (Version 2).

결론 – 단계적 확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모델

글로벌 영상산업은 OTT 확산과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으로, 제작·투자·소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호주는 명확한 세제 인센티브, 첨단 제작 인프라, 숙련된 인력, 그리고 공공 지원 체계를 모두 갖춘 국가로 부상했다.

Producer·Location·PDV Offset 제도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환급형 세제 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를 제공하며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호주는 단순한 로케이션을 넘어, 기획/제작/후반작업/배급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Screen Australia와 주정부(Screen NSW, Screen Queensland 등)는 세제 인센티브뿐 아니라, 공공 개발 펀딩과 국제 공동제작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 제작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는 글로벌 OTT 및 메이저 스튜디오의 '제작 허브이자 파이낸싱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IP 경쟁력과 제작 역량을 입증한 상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강점을 제도적 안정성과 제작 효율성을 갖춘 호주 시스템과 결합하는 일이다. 호주는 한국 기업이 IP 현지화,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형 콘텐츠 공동 개발, PDV 후반작업, 공영방송 공동제작 및 편성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Digital Originals(숏폼), ACTF(키즈·패밀리), ABC·SBS 커미션(다큐·팩추얼) 등은 공공 지원이 활발하고 리스크가 낮은 분야로, 초기 협업에 적합하다.

이러한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 첫째,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타깃 장르 및 세제 구조(Offset 선택)를 확정하고, 주정부 인센티브와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둘째, 한–호 공동 개발 체계를 통해 IP 소유권·편집권·배급권 등 권리 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 셋째, 컴플라이언스(아동 고용, 데이터 보안 등)를 사전에 내재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기업은 단기적 공동제작 참여를 넘어, 호주 내 창작 네트워크 및 제작 인프라와 장기적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럿(POC) 제작을 시작으로, 시즌 확장과 국제 유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호 양국의 콘텐츠 산업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결국 호주는 제도·인프라·공공 네트워크가 결합된 실행형 공동제작 허브이며, 한국은 창의적 IP와 스토리텔링 역량을 보유한 이상적 파트너다. 두 나라의 협력은 단순한 제작 협업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호주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전영환 센터장	+61 2 7241 4660	yhnom@kocca.kr
김지영 과장	+61 2 7241 4660	regina@kocca.kr

호주 콘텐츠 산업 동향	
2025년 6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전영환 (호주 비즈니스센터장) 김지영 (호주 비즈니스센터 과장)
집필자	홍정우 (H & H Consulting 컨설턴트) 조옥아 (H & H Consulting 컨설턴트) 송석현 (H & H Consulting 컨설턴트)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5년 10월 21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